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통해 본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시적 언어*

김난희**

【 차 례 】

- I. 서론
- II. 본론
 - 1.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김지하의 생명
 - 2. 보존으로서의 코나투스, ‘신명’으로서의 민중적 담시
 - 3. 공존으로서의 코나투스, ‘틈’으로서의 단형 서정시
- III.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연구 목적은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의 코나투스(conatus) 개념을 통해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그에 따른 시적 언어를 새롭게 읽고자 함에 있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가 보존과 공존이라는 이중성을 구조화한 생명의 원리라면, 김지하의 역(易)이라는 상보성의 원리도 보존으로서의 ‘신명’과 공존으로서의 ‘틈’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생명의 원리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시적 언어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시적 언어는 그의 시력(詩歷)에 따라 구분되는 특정 시기의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일관되게 추구하고 탐구해왔던 생명사상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변용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어보면 신명 시학, 틈의 시학, 울려 시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학은 나중에 ‘흰 그늘’의 통합적인 생명시학으로 수렴되면서 체계화되는데, 본고에서는 신명 시학과 틈의 시학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069)

** 단독저자, 순천향대학교 기초공통교양학부 강사, ranikimhee@hanmail.net

중심으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¹⁾와 어느 지점에서 상통할 수 있으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코나투스의 보존과 공존이라는 이중적 속성은 김지하가 언급한 생명사상의 핵심요소인 역(易), 또는 불연기연(不然其緣)과 본질적으로 상통한다. 이 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1970-80년대의 민중적 담시를 중심으로 ‘신명 시학’을 보존의 코나투스로, 1990-2000년대 초반까지의 단형 서정시를 중심으로 ‘틈의 시학’을 공존의 코나투스로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시를 해석해보는 또 다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코나투스와의 관계 속에서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시적 언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될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열쇠어 : 스피노자, 코나투스, 보존, 공존, 김지하, 생명시학, 시적 언어, 신명, 민중적 담시, 틈, 단형 서정시

I. 서론

일반적으로 알려진 김지하(1941~2022)의 생명시학과 그에 따른 시 창작은 전통적인 민예양식을 바탕으로 한 1970년대의 민중적 담시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생명사상과 그에 걸맞은 형식의 시(일명 서정적 단형시; ‘틈’사상을 바탕으로 한 여백 중심의 서정시)를 통해 1990년대~ 2000년대 초중반까지 만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
- 1) 김지하 시에 대한 시대적인 구분은 대체로 4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시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정신을 담은 시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 시기에 속하는 시집으로는 『황토』(한얼문고, 1970), 『타는 목마름으로』(창비, 1982)와 1985년 전후로 발표된 담시를 포함시킬 수 있다. 2시기는 1980년 출간 이후 내적 성찰과 고독을 다룬 시편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 시기에 속하는 시집으로는 『애린 1』(실천문학사, 1986), 『검은산 하얀방』(분도출판사, 1986), 『애린 2』(실천문학사, 1986), 『별발을 우러르며』(동광출판사, 1989)가 있다. 3시기는 시인이 추구해왔던 생명 사상의 완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이 추구해온 생명 사상과 연동하여 시 창작 원리, 미학적 원리를 발표하며, 그에 따른 시창작도 병행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시집으로는 『중심의 괴로움』(솔, 1994), 『花開』(실천문학사, 2002), 『절, 그 언저리』(창비, 2003), 『유목과 은둔』(창비, 2004), 『새벽강』(시학, 2006), 『비단길』(시학, 2006)이 있다. 마지막으로 4시기는 “허름한 형식의 신령한 내용”이 담긴, 자칭 ‘못난 시’가 중심을 이루는데, 주로 노년 이후의 화해와 생명의 근원을 추구하는 시편들이 많다. 이

그러나 이는 시대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구분할 때의 분류에 의한 것이고, 김지하 생명시학의 근간을 이룬 생명사상은 그가 유신 군사정권에 저항하여 민중적 담시를 쓸 때부터 시 창작의 밑그림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²⁾ 김지하의 생명시학은 그의 시에 일관되게 작용하는 생명사상의 시학화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지하는 자신의 문학적 여정을 ‘흰 그늘’의 미학적 체계 속에서 질서화 시키는 작업을 완수하였는데, 김지하의 시학이 생명의 생성 및 생명 문화의 구성 원리로 작용하는 ‘흰 그늘’을 근간으로 하는 생명 미학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참조한다면,³⁾ 김지하 시에 대한 분류는 생명 사상에 대한 시적 표현과 형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김지하 생명사상의 흐름과 그에 따른 시 형식의 변모 과정에 따라 김지하의 시를 나누어보자면 1) 민중적 담시(‘신명’시학), 2) 서정적 단형시(‘틈’의 시학), 3) 허름한 형식의 신령시(‘올려’시학)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본 연구에서는 민중적 담시인 ‘신명’시학과 ‘틈’의 시학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에 속하는 ‘허름한 형식의 신령시(올려시학)’의 경우는 넓게 보아 김지하의 생명 사상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김지하가 1999년, 『올려란 무엇인가』를 발표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올려사상을 논하게 된 계기는 새로운 문화의 창출이라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담론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 생명시학적 차원이나 시적 언어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지하 스스로도 “시장의 다성적인 탈중심화에 우주 생명의 분류가 흐른다; 담시”, “언어의 틈과 여백에 우주의 침묵 소리가 서식한다; 서정시”로 분류하

시기에 해당하는 시집으로는 『뭇난 시들』(자음과모음, 2009), 『시 삼백 1.2.3』(자음과모음, 2010), 『산알 모란꽃』(시학, 2010), 『흰 그늘의 산알 소식과 산알의 흰 그늘 노래』(천년의 시작, 2010), 『시집새 1. 2』(신생, 2012)가 있다.(김난희, 「김지하 시에 나타난 ‘틈’사상의 시학적 원리와 시적 현현」, 『국제어문』 56집, 2012, 231쪽 참조.)

2) 김지하, 「김지하의 문예이론에 대하여」, 『김지하의 문예이론』서문, 국학자료원, 2013.

3) 김지하, 같은 글.

여4) ‘신명 시학’과 ‘틈의 시학’을 중심으로 ‘흰 그늘’의 미학을 완성시켜 왔기 때문에 그의 생명시학과 그에 따른 시적 언어는 1)과 2)의 시기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의 코나투스(conatus) 개념을 통해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그에 따른 시적 언어를 새롭게 읽고자 함에 있는데, 이는 김지하의 생명사상과 관련하여 김지하의 시를 읽었던 기존 논의⁵⁾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김지하의 생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명 시학 및 시적 언어는 김지하의 전체적인 문학적 여정에서 시기별로 분리되어 존재하기보다는 시적 양식을 달리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연계 과정으로 존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논의가 1970년대의 정치적 저항시 이후(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시들을 중심으로 ‘생명시’라는 명칭 아래 별도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과 이 논의들이 김지하만의 생명사상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동어반복으로 머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김지하 생명사상의 스펙트럼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그 자체만 따라가기에도 급급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의 생명 사상과 문학적 연계점을 달리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명의 본질을 각 개체의물질적 상호 작용에 주목하여 살펴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

4) 김지하 『틈』, 솔출판사, 1995, 104쪽.

5) 김지하의 생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명시학과 시적언어에 관한 주된 논의로는 아래의 글들을 꼽을 수 있다.

김형권, 「김지하의 생명시와 생명시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0.

임동화, 「생성의 사유와 ‘무’의 시학: 김지하 시세계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04.

박애리, 「김지하 시 연구: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논문, 2009.

이병급, 「김지하 서정시의 생명사상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0.

박수경, 「김지하의 생명미학연구(1)」, 『시민문학』 제8호,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2000.

박정호, 「명상과 변혁의 통일로서 김지하의 생명 사상」, 『시대와 철학』 제19권 1호, 2008.

정훈, 「『花開』에 드러난 시적언어와 사상의 문제- <不然其然>과 <和靜>의 논리를 중심으로」, 『동남어문집』 제23집, 2007.

념에 비추어 김지하의 생명사상에 따른 생명시학과 시적 언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 논의에서 결락되었던 다른 관점에서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시를 해석해보는 또 다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의 관계 속에서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시적 언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본론

1.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김지하의 생명

널리 알려져 있듯이, “각각의 사물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 노력한다.”⁶⁾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본성상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애쓰며 각각의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특징적인 노력, 혹은 경향을 갖는다.⁷⁾ 즉, 각각의 사물들은 자신의 고유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파괴하는 어떤 외부적인 것과 관계하지 않는 한, 자신의 고유한 관계 아래 그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자신의 고유한 관계란 자신의 존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자 하는 목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연법칙과도 같은 것이다.⁸⁾ 이러한 코나투스는 생명체의 자기 유지 노력이라는 ‘보존’의 의미와 각 개체들 간 관계 속의 변용을 통한 재합성이라는 ‘공존’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해석의 역사를 거쳐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보존으로서의 코나투스는 각 개체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저항, 투쟁 등으로 해석되

6) B.스피노자, 『에티카』, 황태연 옮김, 비홍출판사, 2014, 168쪽. 여기서의 사물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체들, 식물, 동물, 광물 일체를 일컫는 것으로, 인간중심적인 것을 넘어서는 관점으로 해석된다.(윤지영, 「주이상스의 정치학을 위한 시론」,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콜로키움 발제문, 2014, 6쪽)

7) 홍영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 『철학연구』73, 철학연구회, 2006, 24쪽.

8) 홍영미, 같은 글, 28쪽.

어 온 역사를 지녔다면 공존으로의 코나투스(being)는 생명체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관계체성(trans-individuality), 합치(convenientia)등의 의미로 해석되는 의미화의 역사를 지녀온 것이다.⁹⁾

어떤 사물이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외부의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외부의 다른 사물과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물의 코나투스와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 사물의 코나투스는 자신의 존재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반면, 자기 보존에 방해가 될 때는 저항하려는 힘, 곧 힘을 증대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모든 사물은 존재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 각자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과 해가 되는 것을 파괴하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적합한 것을 보존하고자 노력(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코나투스를 ‘보존’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다.

반면, 각 개체 간의 코나투스가 맺는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자기 보존으로서의 코나투스가 다른 코나투스와 마주칠 때는 관계 속의 변용으로서 자신의 본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 방점을 둔 입장은 ‘공존’의 차원에서 코나투스를 바라본다. 코나투스를 공존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코나투스 투쟁으로 인한 각 개체들의 보존은 부분들의 어떠한 변화 없이 정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이 분리와 보충, 또는 외부 환경과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¹¹⁾ 코나투스를 이같은 관계체성

9) ‘보존’으로서의 코나투스는 주로 니체, 메를로 폰티, 질 들뢰즈 등에 의해 신체나 힘, 지각, 감각 등의 논의와 연계되어 변용·지속되어온 반면, ‘공존’으로서의 코나투스는 스피노자 사상에서 능력(potentia)과 관계체성(trans-individuality) 개념에 주목하여 신과 양태의 관계를 재해석함으로써 코나투스를 정치적 차원에서 재발견한 철학자들(마르샬 게루, 알렉산드르 마트롱, 에티엔 발리바르, 안토니오 네그리 등)에 의해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기명, 「스피노자의 ‘다중’개념의 민중신학적 함의」,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3쪽.)

10) 홍영미, 앞의 글, 32쪽.

11) 에티엔 발리바르,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그린비출판사, 2005, 222쪽.

(trans-individuality) 차원에서 바라본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에 의하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각각의 개체의 보존, 곧 그 안정성과 동일성은 그 부분들의 ‘연속적인 재생’과 양립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한 개체가 연속적으로 실존한다는 것은 그것이 재생되거나 재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환경을 이루는 다른 개체들과 교환하지 않으면 재생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개체는 자신의 형태와 실존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개체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¹²⁾ 이때의 재생은 주어진 개체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버리고, 다른 개체들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개체들은 분해되고 합성되며, 해체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통일체들로 재합성된다. 따라서 발리바르는 만약 개체가 자신을 재생하기 위해 자신과 합치(convenientia)해야 할 다른 개체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개체는 실존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때의 합치는 고정되지 않은 역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성되지 않으면 개체는 파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속적으로 재합성, 재구축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¹³⁾

뢰비우스의 띠처럼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코나투스스의 이같은 이중적 속성 (자신의 고유한 관계 안에서 자신을 보존하려는 ‘보존’으로서의 코나투스 / 다른 개체와 합하여 존재를 지속하려는 ‘공존’으로서의 코나투스)은 김지하가 언급한 생명사상의 기본 원리와 본질적으로 상통한다. 개체의 유지로서의 보존과 관계로서의 공존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김지하가 생명의 이중성을 바탕으로 생명을 정의해낸 것과 동궤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지하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숨겨진 차원’과 ‘드러난 차원’의 이중성이다. 생명이 숨겨진 차원에서 드러난 차원으로 가시화되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 물질화의 과정인

12) 같은 책, 222쪽.

13) 같은 책, 226~227쪽.

데, 감지하는 생명이 자기 자신을 외화하는 과정에서, 즉 가시적인 물질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반대되고 결합될 수 없는 것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고 일치가 나타나는 ‘역(易)’의 세계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이 ‘역(易)’은 이것과 저것, 서로 반대되는 것, 서로 다른 것끼리의 상호 보완성을 갖는 생명의 질서이다. 즉 생명은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의 보완(역易)’을 그 근본원리로 삼는다는 것인데, 감지하는 이를 ‘동시적 공존차원의 이중성’으로 명명한다.¹⁴⁾

생명에 대한 감지하의 이같은 정의는 스피노자의 보존과 공존이라는 코나투스적 이중적 속성으로 번역을 해도 무리가 없는 생명 자체의 자연적 원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기 보존 역량으로서의 코나투스가 자신의 코나투스를 억압하고 방해하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에 비추어 감지하 답시에 나타난 ‘神明(神明)’을 ‘보존으로서의 코나투스’로 읽으면서 이에 따른 시적 언어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자신의 실존을 위해 다른 개체들을 요구한다는 공존으로서의 코나투스 개념이 ‘틈’의 생명사상과 어느 지점에서 상통하는지 살펴보고, ‘틈’의 생명 시학적 원리가 단형 서정시의 시적 언어로 여하히 체현되고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2. 보존으로서의 코나투스, ‘神明’으로서의 민중적 답시

감지하의 시적 이력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명사상을 시 형식 및 시적 언어와 관련하여 시학적 차원으로 정식화한 시기(동학과 생명 사상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했던 1980년대 중반 이후~1990년대)이전에도 지식인적 주체를 해체하고 민중적 주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와 형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답시 스타일의 시 형식을 창안했는데,¹⁵⁾ 감지하는 이때의 답시에 담긴 미의식의 핵심을 ‘神明(神明)’으로

14) 감지하, 『흰 그들의 미학을 찾아서』, 실천문화사, 2005, 145~146쪽.

규정한바 있다. 따라서 자신의 답시는 행간에 솟아나는 신명의 문법을 잘 보아야만 하는 ‘생명의 시’라는¹⁶⁾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지하에 의하면 신명이란 “생명 에너지의 고양된 총족”이다. 이때의 신명은 민중을 생명의 담지자로 보았던 그의 민중관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그 민중관과 연동되어 제출된 민중적 답시 언어의 핵심이기도 하다.¹⁷⁾

「생명의 담지자인 민중」(1984),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1984)에서 김지하는 민중을 “부단히 변화하고 생동하고 있는 실체”¹⁸⁾로 본다. 이는 민중에 대한 어떤 개념도 시대, 상황, 서로의 입장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種)개념에서 탈피하여 유(類)개념으로서의 민중(움직이고 변화하는 실체로서의 생명에 기초한 절대적인 개념)을 통해 보다 근원적이고, 질적이며, 본체적이고 살아 생동하는 생명체로 민중을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한 개념이다.¹⁹⁾ 이러한 유(類)개념으로 볼 때, 김지하에게 민중이란 “생명의 근원적인 실상을 가시적으로 성취시키려고 노력하는 자, 생명의 온갖 질곡·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 생명운동의 장애가 나타날 때 그 장애에 대해 저항하는 자”이다.²⁰⁾

민중을 “생명의 담지자이자 생동하는 실체”로 본 김지하의 이같은 민

15) 김지하,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4, 213-221쪽 참조.

16) 김지하, 『오적』, 솔 출판사, 1993, 10쪽. 이 책은 김지하가 자신의 생명 사상을 활발하게 발표하던 무렵인 1993년에 출간됐다. 김지하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답시가 신명을 기반으로 한 ‘생명시’임을 밝히고 있다. 김지하의 답시가 정치적으로 엄혹했던 1970년-80년대 중후반까지 주로 발표되었음을 감안한다면(『五賊』(1970), 『櫻賊歌』(1971), 『蜚語』(1972), 『五行』(1973), 『풍바다』(1974), 『김흔들 이야기』(1988), 『고무장화』(1988), 『이 가문 날에 비구름』(1988)등), 김지하의 이같은 입장은 답시를 자신의 저항적 정치시로 단절시키기 보다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생명 사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틀을 갖추면서 ‘생명시’차원으로 통합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통합적 차원의 답시에 대한 규정은 이후 ‘흰 그늘’의 미학을 통해 “시장의 다성적인 탈중심화에 우주 생명의 분류가 흐르는 시”로 분류되기도 한다.

17) 김지하, 『남조선 뱃노래』, 자음과모음, 2012, 356쪽.

18) 김지하, 『밥』, 분도출판사, 1984, 181쪽.

19) 김지하, 같은 책, 129~135쪽 참조.

20) 김지하, 같은 책, 144쪽.

중관은 곧바로 시적 언어로 연동되는데, 그에게 있어 필요한 민중적 언어는 “모든 생명체를 생명체이게 한 기본 법칙에 이르러야 하는 것”²¹⁾이다. 김지하에게 생명체를 생명체이게 한 기본 법칙이란 일원성, 통일성, 역동성, 전일체성, 협동성, 유연성, 지속성, 친화성, 주체성, 다양성, 저항성을 그 본질로 삼는 생명의 ‘능동적인 힘’이다.²²⁾ 그렇기 때문에 김지하에게는 생명의 본질에 부합하는 이 ‘능동적인 힘’이 민중 언어의 심급이 된다. 생명을 생명체이게 하는 이 능동적인 힘을 김지하는 ‘신명’이라고 부른다.²³⁾ 그리고 현실 속에서 구속되고 짓눌려 있는 생명체인 민중을 생명의 본질에 부합하는 생명체이게 할 수 있는 언어는 ‘생명 에너지의 고양된 총족’으로서의 능동적인 힘인 ‘신명’의 언어여야 한다. 이 신명의 언어는 생명 자체가 그러하듯 말의 가락, 장단, 울림, 그늘, 빛깔과 냄새, 호흡이 살아 숨 쉬는 움직임으로서의 언어다.²⁴⁾ 따라서 자신의 담시는 “생명의 문법을 모토로 하며, 행간에 솟아나는 신명의 문법을 잘 보아야

21) 김지하, 『남조선 뱃노래』, 자음과모음, 2012, 109쪽.

22) 김지하는 생명을 하나의 생동하는 총체로부터 끝없이 창조되는 하나의 총체(일원성), 물질과는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한데 합쳐진 것(통일성), 끊임없이 목적과 방향을 지닌 운동(역동성), 다른 모든 생명의 고리들과 이어진 것(전일체성), 다른 생명들과 서로 도우는 것(협동성), 끊임없이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확장성), 외부의 상황 변화에 따라 자신의 기능과 구조를 조절하는 것(유연성), 개체들을 고리로 삼아 과거에서 미래로 연속되는 것(지속성), 종(種)과 류(類)가 달라도 영성적 교류가 가능한 것(친화성), 일정한 종으로서, 개체로서 스스로의 운명에 책임을 지는 것(주체성), 상황에 따라 스스로의 기능을 새로운 구조로 변형시키는 것(다양성), 생명의 본성적인 여러 활동들을 파괴, 억압, 약탈하는 반생명적 장애에 부딪혔을 때 저항하여 극복하는 능동적인 힘(저항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리한다. (김지하, 같은 책, 112쪽.)

23) 김지하에 따르면 이 신명은 ‘생명에너지의 고양된 총족’인데, 이는 마음이기도 하며 정신이기도 하고, 정신인가 하면 영혼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면서 기(氣), 또는 에네르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생명력의 고양된 활동으로서 유심론으로도 유물론으로도 불가능하며 오직 물(物)과 심(心)을 하나의 두 측면으로 보는 유기론(唯氣論), 기일원론(氣一元論)으로 보아야 하는 개념이다.(김지하, 『남조선 뱃노래』, 자음과 모음, 2012, 355쪽.) 한편, 김지하는 생명이라는 말이 신비주의적인 오해를 준다면 이를 기(氣)라고 바꿔도 좋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문에 부분과 관련해서 생명을 칭할 때는 신명이라는 말을 썼다고 밝힌다.(김지하, 같은 책, 416쪽.) 이에 따르면 김지하에게 생명은 신명, 기(氣)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김지하, 같은 책, 357~368쪽.

만 하는 생명의 시”라는 김지하의 입장은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능동적인 힘(생명 에너지의 고양된 충족으로서의 신명)’이 어떻게 포획되고 배치되어야 살아 숨 쉬는 움직임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신명의 언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는데, 김지하는 민중언어의 신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 동사와 명사 속에서는 얼른 잡히지 않는 언어의 울림, 빗갈, 그들과 같은 언어 기능들을 살아 생동하게 만드는 문제, 2) 주변부로 물러나 있는 조사, 부사, 형용사의 주권회복 문제, 3) 민중적인 생활 언어 안에 있는 복문구조와 빈번한 도치구조의 활용문제, 4) 언어와 언어 사이의 관계에 역동적인 변형과 그것에 의한 관계 자체의 변화 문제에 대한 시적 언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²⁵⁾ 이들은 모두 민중적 삶의 살아 생동하는 힘을 보여주는 감각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

여기서 살아 생동하는 힘을 보여주는 감각은 이성과 지각 작용에 의해 전통적으로 해석되어온 외부에 대한 신체의 수용성(흔히 오감이라 불리는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등)보다는 두뇌의 통제에서 벗어나 감각에서 직접 신체로 내려가는 개념으로서의 감각이다. 이는 감각을 “몸(신체)를 가로지르는 파동과 신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보이지 않는 힘들이 만나는 과정”이라고 본 들뢰즈의 감각의 논리에서 차용한 것인데, 들뢰즈에 따르면 감각이란 빛과 색의 자유롭거나 대상을 떠난 유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체 속에 있다. 이는 감각이 바로 신체라는 뜻이며, 이때 신체는 대상으로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각을 느끼는 자로서 체험된 신체이다.²⁶⁾ 그렇다면, 하나의 색,맛, 촉각, 냄새, 소리, 무게 사이에는 감각의 재현이 아닌 ‘신경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순간을 구성할 존재론적 소통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소통은 한 영역에 속

25) 김지하, 같은 책, 364쪽.

26)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2008, 47~ 48쪽.

하는 감각(예를 들어 청각이나 시각 등)이 모든 감각에 걸쳐있고 그들을 모두 다 통과하는 어떤 생생한 힘 위에서 직접 포착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들뢰즈는 본다. 들뢰즈는 이 힘을 시각이나 청각 등보다 훨씬 깊은 것으로서 리듬이라고 부르기도, 일종의 기(氣)와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⁷⁾

들뢰즈의 이같은 감각의 논리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에 대한 사유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는 자신의 존재 안에서 지속하고자 노력하는 코나투스의 힘들로 구성된 총체이며,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외부의 힘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이상 무한하다는 스피노자의 힘(코나투스)의 개념이 바탕이 된 것이다.²⁸⁾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가 들뢰즈에게서는 신체 그 자체로서의 감각, 혹은 모든 감각 영역을 관통하는 어떤 힘으로서의 리듬, 기(氣)와 같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마음이기도 하며 정신이기도 하고, 정신인가 하면 영혼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면서 기(氣), 또는 에네르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생명력의 고양된 활동”이라고 보았던 김지하의 신명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코나투스로서의 힘(스피노자), 신체의 모든 감각 영역을 관통하는 것으로서의 힘(들뢰즈), 자신의 생명력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생명의 적극적인 활동으로서의 능동적인 힘(김지하)은 모두 자연법칙으로서의 ‘생명’의 실상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하가 신명을 “생명 에너지의 고양된 총족”이라 했을 때, 이것은 개체의 ‘생명임(생명을 생명에게 하는 기본 법칙)’이 장애에 부딪혔을 때 저항하여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종의 ‘능동적인 힘’의 총족이다. 그렇다면 생명을 생명에게 하는 신명의 언어는 이 힘(감각)을 포획하는 언어여야 한다.

27) 질 들뢰즈, 같은 책, 57쪽.

28) 연효숙, 「들뢰즈에서 감각의 힘과 공감각의 논리」, 『헤겔연구』 41호, 2014, 175~176쪽.

① 첫째 도둑 나온다 獬豸이란 놈 나온다

돈으로 옷해 입고 돈으로 모자해 쓰고 돈으로 구두해 신고 돈으로 장갑
해 끼고

금시계, 금반지, 금팔찌, 금단추, 금넥타이 핀, 금카후스보턴, 금박클, 금니
빨, 금손톱, 금발
톱, 금작크, 금세계줄.

디룩디룩 방댕이, 불룩불룩 아랫배, 방귀를 뽕뽕뀌며 아그작 아그작 나온다
저놈 재조봐라 저 재벌놈 재조봐라

장관은 노랑게 굵고 차관은 별절게 삶아

초치고 간장치고 계자치고 미원까지 툭툭쳐서 실고추 파 마늘 곁들여 날름
세금받은 은행돈, 외국서 빚낸 돈, 원갓 특혜 좋은 이권은 모조리 꿀꺽
이쁜년 꺾어서 첩삼아 밤낮으로 직신작신 새끼끼기 여념 없다

(중략)

마지막 놈 나온다

장차관이 나온다

허형게 백태끼어 삐적삐적 술지게미 가득 고여 빠져나와

추접 無比 눈곱 긴 눈 형형하게 부라리며 왼손은 골프채로 국방을 지휘
하고

오른손은 주물럭주물럭 계집젓통 위에다가 증산수출 건설이라 갈작갈작
쓰노라니

호호 아이 간지럽사와요

이런 무식한 년, 國事가 간지러워?

「五賊」중에서(김지하 답시 전집, 『五賊』, 솔 출판사, 1993)

② 그 곁에 계집년은 공연히 방귀를 뽕뽕뀌며 배실배실배실배실 웃고
자빠졌고, 불이얏! 불이얏!

불이얏! 소리만 지르면 불꺼지는 줄 알고 그제 이놈도 불이얏! 저놈도 불
이얏! 천방지축 부끄럼도 없이 원통 벌거벗은 년놈들이 이리 와크르르 저
리 와크르르르 몰리고 쏘리고 얹히고 설켜 와글와글와글와글와글— 웃

장 속에 대가리 처박고 두다리 흔들흔들 교통정리하는 년, 불알 잔뜩 움켜
쥐고 **따다다다닥다닥** 장단맞추어 이빨 부딪치는 놈, 알몸에 공무원 개패
만 **찬놈**, 알몸에 진주목걸이만 두른 년, 알몸에 권총만 **찬놈**, 이놈저놈 불
들어놓고 내가 내일 미국무성 초청으로 노스웨스트를 타야 하는데 어떻
게 하죠? 묻는 놈, 뽕통을 **뿌락뿌락** 내싸지르고 나자빠지는 놈, 뽕질나게
질질질질 디립다 오줌만 퍼싸는 년, 우거지 상으로 우는 년, **뽕뽕** 악을 쓰
는 년, **뽕즈**만 입고 **뽕즈** 위에 급한 중에도 대학 뱃지는 단단히 달아 분
명히 찬년, 돈주고도 못산다고 알몸에 도쿄 핫또만 단정히 쓰고 내닫는
놈, 돈을 잔뜩 움켜쥐고도 내돈 내돈 내돈 찾으러 다니는 놈
(중략)

우왕좌왕 악을 **뽕뽕** 쓰며 돌아치는데 **평평** 전구, **광광** 술병, **깡그랑 깡** 유
리, **휘딱휘딱** 철근, **픽픽** 불덩이, **번득번득** 전광, **뿌지직** 나무, **과당과당**
회벽, **지지지지직** 주단, **휘휘** 불붙는 소리 우주가 바뀌고 벽력이 진동하
니 허허, 허무구나! 阿房宮, 철옹성이 초가집보다도 못하구나! 사방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터지고 짜그라지고 떨어지고 휘어지고 찢라지고 끊어지
고 일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자취없이 사라지고 여지없이 불타 없어지는데
도 불끌 방도는커녕 불피할 쥐구멍 하나 뚫린 곳 없이 사방 **콕콕** 막힌 중
에 **딱**-서로 **마뽕**을 부딪친다.

「蜚語」중에서 (김지하 답시 전집, 『五賊』, 솔, 1993)

위의 답시는 1970년대의 엄혹한 정치 속에서 민중들이 구속당하고 짓
눌리는 상황에 대한 저항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정치시로 평가되지만, 김
지하가 민중적 답시의 문법이 ‘신명의 솟아오름’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
의 답시를 ‘생명시’로 명명했던 점을 떠올려보면 이 시에 드러난 저항성
은 외부의 물신 폭력에 의해 차단된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투쟁에
다름 아니다. 이는 모든 사물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다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과 교집합을 이루는데, 질곡에 빠진 자신의 생
명력을 되찾기 위한 신명의 언어는 주로 의성어, 의태어로 드러나는 감

각의 용법과 그 감각을 관통하는 힘의 작용으로부터 추적이 가능해보인다.

김지하의 답시에서는 위의 시에서처럼 의성어, 의태어 등으로 드러나는 감각(주요하게 드러나는 감각은 주로 촉각인데, 이 촉각은 청각, 시각 등과 결합된 복수 감각의 형태로 자주 드러난다. ①과 ②의굼은 글씨 참조.)을 통해 주체의 저항 정동(신명)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의태어와 의성어들은 본래 사물의 물질성에 가장 밀착해있는 기호들이다. 이것들은 사물의 양태와 형식을 강화할 뿐, 그 자체로 지시적인 의미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특정한 파토스가 아니라 특정한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 양식에 가깝다.²⁹⁾

당대 부정한 관료들의 부패상을 고발한 답시 ①의 경우, 오적(五賊) 중에서도 재벌과 장차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들의 모습은 자신의 경험을 시각화하여 재현하는 묘사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복수 감각을 동원하여 정형화된 고정 감각으로서의 시각 체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는 억압적인 외부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힘이 발동됨으로써 체현되는 저항성을 보여준다. “삐적삐적”, “주물럭주물럭”, “갈짝갈짝”, “직신작신”등의 의성(태)어는 모두가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주요하게 촉각과 관련돼있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촉각은 감각 작용 가운데 가장 심오한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신체와 정념들이 전개되며, 궁극적으로는 주체와 대상의 결속을 조준한다.³⁰⁾ 김지하 역시 촉각을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언급하는데, 이같은 촉각을 통해 전달되는 주체와 대상 간의 접촉은 무엇보다 억눌린 생명의 역동적인 저항의 힘(신명)을 행간 속에서 솟아오르게 한다. 아울러 “금”, “돈으로”의 반복구문에서 나타나는 연결조사 “~으로”의 반복과 연결어미 “~고”의 반복은 묘사에 의한 시각적 형상을 뚫고 대상에 대한 저항적 힘의 감각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 ②에서의

29) 권혁웅, 『미래파』, 문학과지성사, 2005, 48-49쪽.

30) 김성도,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6, 319쪽.

“와크르르르”, “와글와글”, “따다다다닥닥” 등 의성어의 반복 역시 불이 난 호텔에서 벌어진 난장판에 대한 주체의 역동적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뻑뻑”, “뿌락뿌락”, “꽉꽉”, “휘딱휘딱” 등 격음의 연쇄를 통해 대상에 대한 분노의 정동은 더 강렬하게 드러난다.

담시에서의 이같은 감각의 표현은 시적 주체가 경험한 억압의 강도가 높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억압으로부터 풀려나오려는 거부 의 욕망도 그만큼 거세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실의 폭력에 맞선 시적 언어의 강도도 그만큼 격렬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김지하는 신명이란 민중적 삶의 살아 생동하는 자유인데, 이 자유를 억압하여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하는 ‘죽임’에 맞서 저항하고 싸워 넘어섬으로써 억눌린 생명을 더욱 넓게 확장하고 드높이는 것이 ‘신명’임을 강조했다.³¹⁾ 위 시에서의 감각은 ‘죽임’에 대한 절대적인 저항 정동을 드러내는 일련의 힘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억압되어 정체된 개체와 집단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명 본래의 능동적인 힘이다. 생명 본래의 능동적인 힘으로서의 이 저항성은 일종의 정치성을 불러오는데, 이때의 정치성은 저항으로서의 코나투스³²⁾가 갖는 속성과 연루되면서 민중시의 저항성을 생명 차원에서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정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존으로서의 코나투스, ‘틈’으로서의 단형 서정시

김지하 생명 사상의 발아는 그가 1975년 반공법 위반으로 네 번째 수감 중이었을 때 교도소 철창 아래 콘크리트와 철창 사이 풀씨가 날아 들어와 짝이 나고 잎이 나는 생명의 신비함을 보면서 생명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³²⁾ 이때부터 시작된 생명에 대한 탐구의 결과물로는 대표적으로 『밥』(1984), 『살

31) 김지하, 『남조선 뱃노래』, 자음과모음, 2012, 353쪽.

32) 김지하,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 동광출판사, 1991, 16쪽.

림』(1987), 『틈』(1995), 『님』(1995),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1991), 『생명과 자치』(1996)등의 저서를 들 수 있다. 이들 저서에는 대부분 생명에 대한 철학적,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인 내용이 주로 실려 있지만, 이 시기 그의 생명시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틈’의 시학적 원리도 담겨있다.

김지하 생명 사상의 성숙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자신이 추구해온 생명 사상과 생명시학을 연동하여 발표한 시집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기는 ‘애린 찾기’³³⁾ 시절로 불리는 1980년대 중·후반의 시집을 들 수 있다.(『애린 1』(실천문학사, 1986), 『검은산 하얀방』(분도출판사, 1986), 『애린 2』(실천문학사, 1986), 『별밭을 우리르며』(동광출판사, 1989) 등이 여기에 속한다.) 후기는 ‘생명 찾기’ 시절로 불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기까지의 시집을 들 수 있는데(『중심의 괴로움』(솔, 1994), 『花開』(실천문학사, 2002), 『절, 그 언저리』(창비, 2003), 『유목과 은둔』(창비, 2004)) 등이 여기에 속한다.), 후기에 속하는 시집에는 자신의 생명사상을 문예미학과 연계하여 시 창작의 원리로 구현한 작품이 중심을 이룬다. 이 시집들에 나타난 내용과 형식을 관통하는 시학은 ‘틈’의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 ‘틈’은 ‘신명’과 함께 김지하 생명시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신명의 생명시학을 통해 장광설 형식의 담시가 탄생되었다면, 틈의 생명시학을 통해 절제와 여백의 형식인 단형 서정시가 새롭게 출현한 것이다.

김지하의 정의에 의하면 생명은 실체가 아니라 생성이다. 생성으로서의 생명은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관계 속의 변화는 시공 생성의 원리이자 역(易)의 원리이다. 시공 생성 원리로서의 생명은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섭취하여 엔트로피

33) 홍용희는 김지하의 시 세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애비 찾기>, <애린 찾기>, <생명 찾기>의 도정으로 구분한 바 있다. (홍용희, 『김지하 문학 연구』, 시와시학사, 2000, 237쪽.)

의 최고 증대 면인 무질서 속에서도 다핵적으로 분산, 해체하면서 동시에 근원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고도로 질적인 유기화, 복잡화를 성취하는데, 그것은 분산, 확산하면서 동시에 제 안으로 수렴하여 비가역적 물리 과정 속에서 동시에 질적으로 가역적인 것이다.³⁴⁾

한편, 생명 생성의 원리로서의 역(易)은 대립된 양극(해체와 유기화, 분산과 수렴) 사이에서 상보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이중성, 그 양극은 언제나 ‘기우뚱한 균형’을 이루며 생성한다. 이 상보적 균형의 ‘기우뚱함’에서 틈이 열리고 생명은 틈을 조건으로 활동하는데, 틈이 없는 생명은 팽창하거나 확산하지 못한다. 틈을 일종의 생명 적응 기제로 본 김지하의 물질에 상태나 입자의 변화가 가해졌을 때 이 틈도 변함으로써 이 틈의 변화와 함께 입자 사이의 무수한 새로운 질서 형성의 신호가 발산되며 새로운 차원으로 생명이 진화된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틈이 없으면 생명은 확산하거나 팽창하지 못하고 소멸한다고 본다.³⁵⁾

생성으로서의 생명의 원리가 역(易)에 있다 할 때의 이 역(易)은 ‘바꾸다’, ‘고치다’, ‘교환하다’, ‘새로워지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김지하의 이같은 틈 사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 생명체는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버리고 다른 개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재생과 교환을 지속적으로 재합성해나간다는 공존의 코나투스 개념과 상통하는 생명

34) 김지하, 『생명과 자치』, 솔, 1996, 43~44쪽. 김지하의 이같은 입장은 슈뢰딩거의 ‘음(陰)’의 네트로피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슈뢰딩거에 의하면 살아있는 유기체는 계속해서 자체 내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죽음을 뜻하는 최대 엔트로피의 위험한 상태로 다가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유기체는 환경으로부터 계속하여 음(陰)의 엔트로피를 얻어야 죽음에서 멀리 벗어나 살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죽음으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신비하고도 탁월한 재능은 음의 엔트로피의 흐름을 자신에게 끌어당겨서, 살아가느라고 만든 엔트로피의 증가를 보상하여 비교적 낮은 엔트로피 수준에서 일정하게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슈뢰딩거는 “모든 생명은 음(陰)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고 본다. (에르빈 슈뢰딩거, 『생명이란 무엇인가』, 서인석·황상익 옮김, 한울, 2001, 345~347쪽.)

35) 김지하, 『생명과 자치』, 솔, 1996, 175~176쪽.

원리로 볼 수 있다. 스피노자는 개체성을 원자적 실체 또는 외부와 대립한 내부로서의 개체가 갖는 환원 불가능한 고유성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개체들이 맺는 복잡한 인과관계가 그 개체들의 형성 자체에 함축된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개체들은 관개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과 연합함으로써 상위의 개체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스피노자는 이 관개체성(trans-individuality)을 생명 유지의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다.³⁶⁾

이 관개체성에 따르면 모든 개체들은 서로를 변양하고 서로 뒤섞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교환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분해되고 합성되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통일체들로 재합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합성된 통일체라 해서 이 개체가 완결되고 고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각 개체의 해체 또는 탈구축 과정에는 연속적으로 재합성 또는 재구축 과정이 중첩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³⁷⁾ 스피노자의 공존으로서의 코나투스 개념은 김지하의 틈 사상과 동일한 궤도 위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지하는 어떤 단위 생명체가 다른 단위 생명체와 접촉함으로써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킨다는 것, 그래서 탄생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좀 더 적극적인 생명 활동의 주체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종(種)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며, 자기가 살기 위해 주변에 있는 것들과 의존적 관계를 이루며 진화해나가는 것이 틈이 활동하는 방식이어서 모든 생명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틈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³⁸⁾

틈이 있어야 생명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김지하의 틈 사상은 이 시기의 시 쓰기에도 반영되어 ‘틈의 시학’에 바탕을 둔 시 형식은 담시와는 달

36) 서동욱, 진태원 역음, 『스피노자의 귀환』, 민음사, 2017, 493쪽.

37) 에티엔 발리바르, 앞의 책, 2005, 226~227쪽.

38) 김지하, 『생명과 자치』, 숲, 1996, 175~176쪽.

리 여백과 행갈이 중심의 시적 언어로 이루어진다. 말과 말, 연과 연, 행과 행 사이를 벌림으로써 말로 드러낼 수 없는 원 이미지가 스스로 드러나게 해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틈의 시학적 원리는 언어의 그물망으로부터 틈을 내어 그 틈 안에 우주적 생명이 서로 연결된 크고 새로워진 삶을 드러내고자 함에 있다.³⁹⁾

이러한 ‘틈’의 시학은 대체로 세 가지 차원에서 김지하의 틈 사상과 교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틈이 없는 생명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못하며, 생명의 역사는 틈이 점점 커지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본 김지하는 언어에 틈과 여백을 줌으로써 분산과 소방(疏散)의 양식을 추구한다. 둘째, 김지하에 의하면 생명 생성의 근원은 역(易)인데, 이는 ‘활동하는 무(無)’⁴⁰⁾로 인해 생명이 운동과 변화를 거듭한다는 것을 뜻한다. 틈은 곧 ‘활동하는 무(無)’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無)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백이 필요하며 이 여백을 통해 만들어지는 틈에 의해 시의 행갈이가 결정되고 서정이 형성된다. 셋째, ‘없음’(무(無), 비어 있음)에 기초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면, 시 형식에 있어서도 이미지의 풍요와 언어의 사치를 경계하고 ‘무(無)’, ‘공(空)’, ‘허(虛)’에 토대를 둔 미학적 규범이 필요하다.⁴¹⁾

① 사랑은 틈

39) 김지하, 『틈』, 솔, 1995, 122쪽.

40) 김지하가 말하는 ‘활동하는 무(無)’란 양자론에서 말하는 에너지로 가득한 허공의 개념으로부터 따온 것으로, 이때의 허공은 노자의 허(虛)나 기학의 태허(太虛), 불교의 공(空)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찬 허공은 우주생명의 기(氣), 일기(一氣)라고 할 수 있는 활동하는 무(無)에 의해 움직인다고 봄으로써 이것은 활동하고 생성하는 자유, 창조하고 진화하는 생명 자체의 자유라고 언급한다. (김지하, 『생명과 자치』, 솔, 1996, 136쪽)

41) 김지하의 틈 사상과 틈의 시학적 원리와의 교호 작용에 대한 내용은 「김지하 시에 나타난 ‘틈’사상의 시학적 원리와 시적 현현(顯現)」(김난희, 『국제어문』 56집, 2012, 12, 234~236쪽)참조.

내 안에서 벌어지는
꽃 이파리 하나
햇살 비쳐들고
바람 불어오고

별이 오고 또 나비가 오고

흰 구름 흐르다 흐르다
밤이면

푸른 별자리들 기울어
이슬 내리고
사랑은
틈

거리에서도
아아
너로 하여
나

우주에 살고.

「틈 2」전문 (김지하, 『화개(花開)』, 실천문학사, 2002)

② 정발산 아래
아파트
아파트 속에 갇힌
나
내 속에 정발산
정발산 속엔 또

해와 달과 별과 바람

나 이제 거리에서도 살고
벽 너머에 이웃에 살고
나 아닌
나를 살고

(후략)

「정발산 아래」 중에서(김지하, 『중심의 괴로움』, 솔, 1994)

위의 시들은 주로 단형의 서정시로 분류되는데, 이때의 시 형식을 보면 한 행에 3단어 이상 실리지 않으며, 한 연은 3행 이상 되지 않는 단형 구조가 주류를 이룬다. 형용사, 부사 등의 수식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 형식과 관련하여 김지하는 언어란 사물을 인식하게 하는 일종의 그물줄인데, 그 줄에 감겨버리면 언어 기호에 지배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물의 줄과 줄 사이에 있는 틈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이탈할 수 있는 시를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시학에 따르면 김지하에게 시라는 것은 읽는 사람의 마음이 크게 열려서 어떤 독특하고 새로운 상상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틈을 여는 것이며 틈을 통해 무(無)가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의 틈과 여백에 우주의 침묵이 서식한다”⁴²⁾ 는 김지하만의 서정시학이 형성된다. 이는 “시장의 다성적인 탈중심화에 우주 생명의 분류가 흐른다”는 담시와는 대별되는 또 다른 생명시학이다.

①에서 언급되고 있는 틈은 곧 사랑이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꽃 이파리 하나에 햇살이 비추고 바람도 불어온다. 별이 오고 나비도 온다. 흰 구름이 흐르고 밤이면 푸른 별자리들 기울어 이슬 내린다. 이 모든 광경

42) 김지하, 『틈』, 솔, 1995, 104쪽.

은 사랑이라는 틈이 만들어낸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광경은 이것을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내 눈 앞에 전개되는 것인데 틈이 없으면 이 사랑은 생겨나지 않는다. 마음에 틈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 비로소 이 광경은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틈으로 인해 생긴 사랑은 “거리에서도/아아/너로 하여/나/우주에 살고”에서 볼 수 있듯이 ‘너’와 ‘내’가 서로 만나는 ‘거리’에서도 썩든다. 나와 너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 ‘우주’에 함께 사는 존재다. 아니, 오히려 ‘나’는 ‘너’로 인해 우주에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사랑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틈이라는 ‘공생’의 원리이다. 이를 통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주도 함께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부른 동화(同化)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이 시에서 동일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식어가 극도로 배제된 이유를 상기하자.) 그것은 나와 너와 우주의 틈 사이만큼 시행과 시어 사이의 벌어진 행간에서 무(無)가 활동하는 여백, 즉 틈 속에서 가능한 원리라는 것을 감지하는 틈의 시학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②의 시 역시 수식어는 전면 배제된 채 명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사물을 명명하는 명사와 그 명사를 연결하는 ‘살다’라는 동사만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1연에서의 “속에”의 반복과 2연에서의 “살고”의 반복이 드러내는 의미를 추적해보면 정발산과 아파트와 나는 하나의 시공에 동시에 존재하는 생명체로 의미화 된다. 아파트라는 시멘트 인공물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정발산과 꽃과 달과 별과 바람이 모두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꽃도, 별도, 바람도 모두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리에서도 살고, 벽 너머 이웃에서도 살고, 나 아닌 나를 살 수 있게 된다. 틈 속에서 활동하는 무(無)에 의해 인공적인 삭막한 신도시는 이제 모두가 그물코처럼 연결되는 곳으로 새롭게 생성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는 위계도 없고 중심도 없다. 바로 틈의 사유로 인해 우주적으로 서로 연결된 크고 새로워진 삶이 열리는 것이다. 따라

서 이 틈의 사유는 당연히 중심으로부터의 이탈, 중심으로부터의 분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③ 봄에
가만 보니
꽃대가 흔들린다

흙 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

꽃피어
퍼지려
사방으로 흩어지려

괴롭다
흔들린다

나도 흔들린다

내일
시골 가
가
비우리라 피우리라

「중심의 괴로움」 전문, (김지하, 『중심의 괴로움』, 솔, 1994)

위 시는 흙 밑으로부터 치열하게 올라오는 힘이었던 꽃대가 자신의 생명을 꽃으로 피게 하고, 그 생명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질

때 흔들리는 생명의 원리를 다룬 시라고 볼 수 있다. 꽃대라는 중심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한껏 피워 올린 꽃은 이제 그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사방으로 흩어져서 자신의 생명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이다. 꽃대는 온 힘을 밀어 올려 꽃이 피기까지의 순간까지만 한 생명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퍼트리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버리고 비워야만 한다. 한때 자신의 중심이었던 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혹은 상당 부분)를 버려야 하는 것이므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괴로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 생명의 유지 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적 주체는 “내일/시골 가/가/비우리라 피우리라”는 다짐을 힘주어 표명한다. 여기서 “가”의 반복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뒷행의 “가”가 한 번 더 반복됨으로써 비울 수밖에 없음을, 그래야만 피울 수 있다는 생명의 원리가 한 번 더 되새김되고 있다. 생명의 원리에 대한 이러한 자각은 소방(疏放)의 언어로 형식화되는데, 이는 곧 하나의 개체는 다른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유지된다는 생명시학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본고에서 필자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가 보존과 공존이라는 이중성을 구조화한 생명의 원리라면, 김지하의 역(易)이라는 상보성의 원리도 보존으로서의 신명과 공존으로서의 틈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생명의 원리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시적 언어를 살펴 보았다. 김지하의 생명시학과 시적 언어는 그의 시력(詩歷)에 따라 구분되는 특정 시기의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일관되게 추구하고 탐구해왔던 생명사상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변용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어보면 신명 시학, 틈의 시학, 울려 시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학은 나중에 ‘흰 그늘’의 통합적인 생명시학으

로 수렴되면서 체계화되는데, 본고에서는 신명 시학과 틈의 시학을 중심으로(올려 시학은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담론이 강해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과 연계시켜 살펴보는 데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어 본고에서 보류하였음은 서론에서 밝힌바 있다.)김지하의 생명 시학과 시적 언어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과 어느 지점에서 상통할 수 있으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했다.

그 결과, 무엇보다 김지하 생명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의 이중성(역(易)이라는, 혹은 불연기연(不然其緣)이라는), 즉 ‘동시적 공존 차원의 이중성’원리가 단지 김지하만의 생명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물론, 여기에는 전통적인 동양의 생명론과 동학의 사상이 담겨 있다.) 서구의 근대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사상과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해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김지하의 생명시학이 생명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시적 언어의 창안에 있었음을 밝혀볼 수 있었다. 또한 17세기 근대 철학자였던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이 현대의 네오 스피노자 철학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 담론으로 거듭나고 있듯이 김지하의 생명시학도 정치·경제, 사회문화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 생성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는 넓게 보면 인간중심주의에서 비인간으로까지 넓혀서 생명을 생각하는 포스트휴먼 차원과도 연계시켜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시대명과 함께 보다 가깝게 다가온 전 지구적 곤경으로 ‘생명’에 대한 다각적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김지하의 생명 시학과 시적 언어를 살펴본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사유와 시적 언어가 우리 시사(詩史)에서 어떻게 존재해왔는가를 점검하고, 도래할 시의 전망을 가늠해 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올려 시학’은 ‘신명 시학’, ‘틈의 시학’과 어떻게 연루되면서 ‘흰 그늘’이라는 생명의 이중성으로 수렴되는지 다른 지면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참고문헌

- 김지하, 『五賊』, 솔 출판사, 1993.
- _____, 『김지하의 문예이론』, 국학자료원, 2013.
- _____, 『툼』, 솔 출판사, 1995.
- _____, 『흰 그들의 미학을 찾아서』, 실천문학사, 2005.
- _____,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4.
- _____, 『남조선 뱃노래』, 자음과모음, 2012.
- _____, 『밥』, 분도출판사, 1984.
- _____, 『남조선 뱃노래』, 자음과 모음, 2012.
- _____,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 동광출판사, 1991.
- _____, 『생명과 자치』, 솔출판사, 1996.
- _____, 『중심의 괴로움』, 솔출판사, 1994.
- 권혁웅, 『미래파』, 문학과지성사, 2005.
- 김기명, 「스피노자의 ‘다중’개념의 민중신학적 함의」,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난희, 「김지하 시에 나타난 ‘툼’사상의 시학적 원리와 시적 현현」, 『국제어문』 56집, 2012, 229~261쪽.
- 김성도,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6.
- 박수경, 「김지하의 생명미학연구(1)」, 『시민인문학』 제8호, 경기대학교인문대학, 2000, 219~249쪽.
- 박애리, 「김지하 시 연구;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논문, 2009.
- 박정호, 「명상과 변혁의 통일로서 김지하의 생명 사상」, 『시대와 철학』 제19권 1호, 2008, 171~202쪽.
- 이병금, 「김지하 서정시의 생명사상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0.
- 연효숙, 「들뢰즈에서 감각의 힘과 공감각의 논리」, 『헤겔연구』 41호, 2014, 169~196쪽.
- 윤지영, 「쥘리앙스의 정치학을 위한 시론」,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콜로키움 발제문, 2014, 1~16쪽.
- 이형권, 「김지하의 생명시와 생명시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0, 211~234쪽.
- 임동환, 「생성의 사유와 ‘무’의 시학; 김지하 시세계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04.
- 정 훈, 『『花開』에 드러난 시적 언어와 사상의 문제- <不然其然>과 <和靜>의 논

- 리를 중심으로」, 『동남어문집』 제23집, 2007, 199~215쪽.
- 홍영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 『철학연구』 73, 철학연구회, 2006, 21~42쪽.
- 홍용희, 『김지하 문학 연구』, 시와시학사, 2000.
- B.스피노자, 『에티카』, 황태연 옮김, 비홍출판사, 2014.
- 에르빈 슈뢰딩거, 『생명이란 무엇인가』, 서인석·황상의 옮김, 한울, 2001.
- 에티엔 발리바르,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그린비출판사, 2005.
-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2008.

Jiha Kim's Life Poetics and Poetic Language Seen through Spinoza's Conatus

Kim, Na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d Kim Ji-ha's Life Poetics and his poetic language anew through Baruch de Spinoza's concept of conatus. If Spinoza's conatus is the principle of life that structured the duality of preservation and coexistence, Jiha Kim's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called 易 can also be seen as the principle of life that shows the duality of 'sinmyeong' as resistance and 'teum' as symbiosis. Kim Ji-ha's Life Poetics and poetic language can be seen as having been continuously transformed in connection with the idea of life that he has consistently pursued and explored, rather than being of a specific period distinguished by his poet career. This can be seen as the poetics of Shinmyeong, the poetics of Teum, and the poetics of Yulyeo. These three poetics are later systematized as they converge into the integrated life-poetics of 'white shade'.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poetics of sinmyeong and the teum, at what point can they be in common with Spinoza's conatus, and what are their implications wanted to take a look. The dual attributes of conatus, preservation and coexistence, are essentially in line with Kim Ji-ha's core element of life thought, 易 or 不然其緣. Based on this point, in this paper, 'Shinmyung Poetics' in the 1970s and 1980s was examined as a conatus of preservation, and 'poetics of teum' from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as a conatus of coexistence.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erpret Kim Ji-ha's life-poetics and poetr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more actively explain Kim Ji-ha's life-poetics and poetic language in the relationship with Spinoza's Conatus.

Keywords : Baruch de Spinoza, Conatus, Preservation, Coexistence, Kim Ji-ha, Life Poetics, Poetic language, Shinmyung, Popular narrative poetry, Teum, Short-form lyric poetry

투고일: 2023. 07. 14./ 심사일: 2023. 08. 13./ 심사완료일: 2023. 08. 14.